

투데이칼럼

대북 유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남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취임 일주일 만에 잇따라 실행했다. 민간단체들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고 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면 중지했다.

한국은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인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자가족모임은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납치된 사람들 소식을 보낼 때까지 바랍만 맞으면 계속 보내겠다. 북한은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 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 전날에도 남북자가족모임은 가족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며 북녘에 전단을 날려 보냈다. 며칠 후,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대선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023년 헌재 결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

자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자가족모임이 통일부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 차례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를 기해, 북한의 대남 방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먼저 대북 확성기를 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자 만 하루가 안 돼 북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남 방송이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된 것이다. 예상되는 정부의 다음 단계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들은 북한이 내보내는 대남 확성기 방송의 기괴한 소리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4시간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중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도했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새 정부 고위직 인선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묻어난다. 초대 국정원장에는, 김대중 정부의 핵

별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지명됐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임명됐다. 위실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오래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손꼽히는 북미, 북핵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들이 남북 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은 상호 비례적 행동일 뿐, 남북 관계에 당장은 큰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못 박으면서, 남한 내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에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당선 사실만 간략히 보도한 뒤 별다른 후속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대신, 자신들의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 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지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6.25 참전용사 아도경(阿道景)씨

1928년생인 전북 진안의 아도경(阿道景)씨는 6·25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은 올해 98세의 참전용사다. 그는 후방 치안을 담당하던 전북경찰청 제18전투부대 소속 연락병이었다.

총상을 입은 것은 1951년 7월 16일 무주군 설천면 신곡리 덕유산 전투 때였다. 이른바 ‘무주 구천동 빨치산 소탕 작전’이었다. 당시 마주하던 빨치산은 1개 대대 규모의 무장 세력이었다.

교전하던 중 그의 양팔에 총탄이 박혔다. 이후 전주 경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진안경찰서 등지에서 근무했다.

총상을 입기 전 그는 전북 지역 내 주요 전투에 대부분 참여했다.

진안 덕태산, 장수 명덕리, 완주 운장산, 순창 회문산, 고창 선운사 등에서 벌어진 빨

치산 소탕 전투 등이 기억에 남는다.

그중에서도 그가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전투는 1951년 1월 정읍 칠보발전소 전투다. 당시 칠보발전소는 빨치산 2500여 명의 수중에 들어 있었다. 발전소 탈환을 위해 투입된 게 바로 아도경 순경이 소속된 제18전투부대였다.

전투는 400고지, 600고지를 거쳐 산 정상인 800고지까지 이어졌다. 한 걸 남는 눈 속에서 적들의 저항이 격렬했지만 발전소를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

아도경 용사는 본래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났으나 광복 직전에 전주시 우전면으로 왔다. “농토 넓은 호남평야에서 배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때문이었다.

전쟁 후 그는 경찰 생활과 인연이 닿은 진안에서 살고 있다. 그는 10년 전쯤 진안을 상도치마을 노인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대사 TV소설-북희 누나

요즘 ‘TV소설-북희 누나’ 재방송이 시청자들의 추억을 자극하며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라마 작가는 남원 출신 이금림(李錦林, 1948년생)이다.

‘북희 누나’는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주인공 ‘북희’와 주변 인물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추억에 잠기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섬세한 필체로 써내려간 대본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낸 것 같다. ‘북희 누나’ 대본에는 시대를 반영하는 특정 노래들이 회마다 등장하고 있다.

‘북희 누나’는 2년 반 만에 부활된 한국방송공사 TV소설로 2011년 11월 7일부터 2012년 5월 4일까지 방영되었다. 드라마는 여주인공 북희가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복희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당찬 소녀다. 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뒤 아버지마저 탄광 사고로 죽자 이북 남동생인 한복남을 데리고 친어머니를 찾아 덕천 양조장으로 들어온다.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재가한 어머니에게 행여 해가 될까봐 이모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북 남동생 북남이 마지 교아원으로 가버리자 서 울로 떠나면서 즐거리는 이어진다.

작가 이금림은 전주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부터 10년간 고향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1980년 KBS 드라마 ‘소리 나팔’을 집필하며 작가로 데뷔하였다.

피아니스트 김정일이 아들이다. 작가는 집필 작품이 매우 많다.

SBS ‘은실이’로 제12회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수상을 안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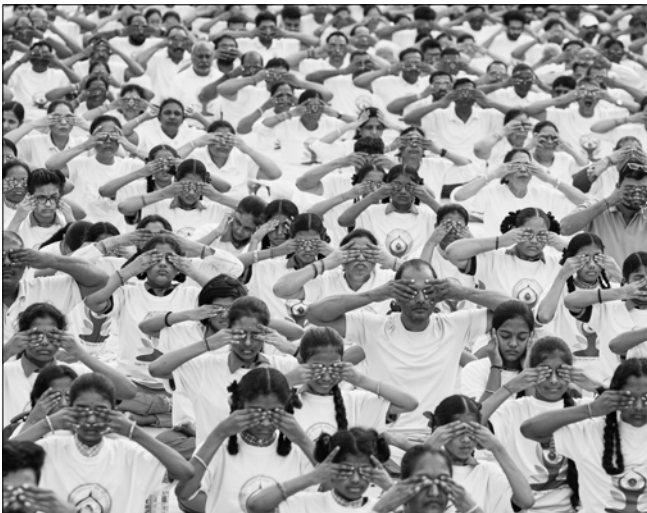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준틴스’ 퍼레이드 지켜보는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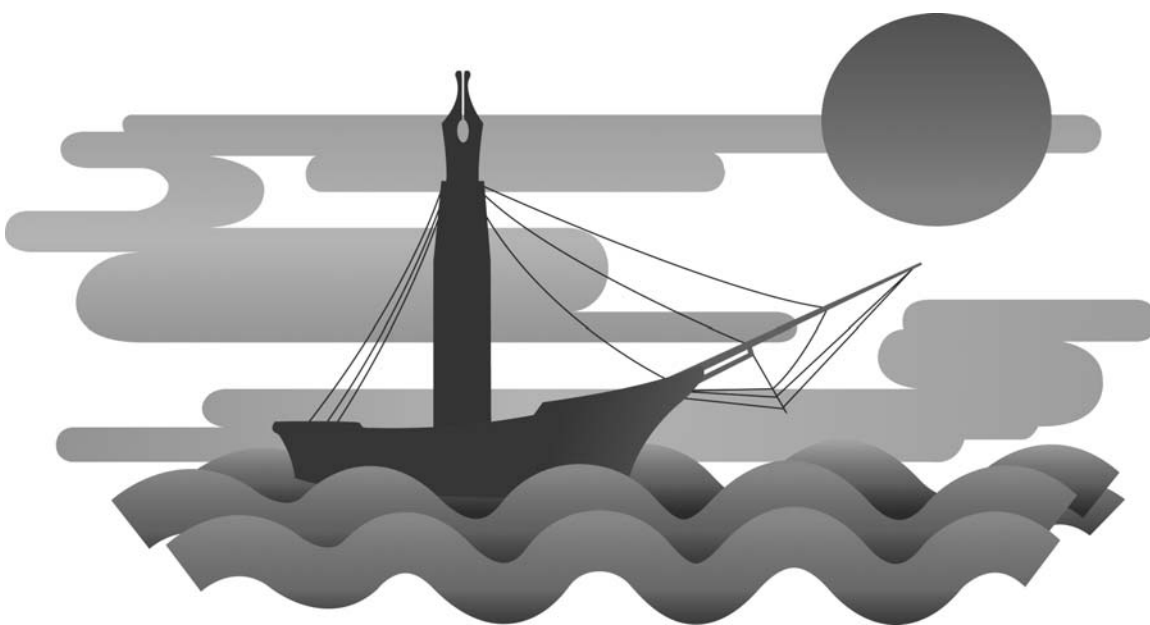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두 소녀가 ‘준틴스’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다. ‘준틴스’는 1969년 6월 19일 텍사스주를 끝으로 흑인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이다.

‘21일은 세계 요가의 날’



지난 20일(현지 시간) 인도 하이데라바드 랄 비후르르 스타디움에서 제11회 UN세계 요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시민들이 요가 연습을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